나의 自傳的 증언
이 나라에선 환경보호
이 칼럼의 붓을 놓으면서

1. 글에 앞서

어언 다,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뛰어들어 20년의 세월을 보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 그 강산이 두번이나 변하도록 오직 환경보호만을 생각하고 살아 왔다.

20년전의 나는 혈기왕성한 젊은이였다. 그러나 지금은 환갑을 바로 코 앞에 둔, 늙은이가 되어 있다.

20년전에는 그래도 재산이라고 불릴만한 것도 꽤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돈이 되지 않는 저서 몇 권과 환경관계 자료가 방 하나가득 수북히 쌓여 있을 뿐이다.

이런 나의 환경보호 20년이, 언뜻 보기에는 허무하고 억울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정작 허무하고 억울한 것은 그래도 20년전에는 잘만하면 이 나라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늦어 어렵다는 사실이다.

즉,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나라에선 환경보호가 어렵다는 사실이 허무하고 억울할 뿐이다.

2. 내가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뛰어든 동기

1960년대 후반, 당시에 참 용기 있고 훌륭한 잡지였던 〈思想界〉가 권력에 의해 폐간되어, 나는 김상현(현, 민주당 최고위원) 윤형두(현, 범우사 대표)학형과 함께 〈思想界〉의 정신을 이끌어 나갈 요량으로 바로 〈월간 다리〉지를 창간해, 세상에 내 보냈다.

그러나 〈다리〉지 또한 문제 잡지(?)로 지목 받아 필화 사건 등의 많은 수난을 겪어야 했으며, 끝내 자의에 의한 자살이 아닌, 타의에 의한 자살로 〈다리〉지의 막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도무지 다스려지지 않는 아픔과 실랑이하며 나는 일본으로 미국으로 무작정 표류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표류속에 우연히 나는 지구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파괴와 오염으로 치명적인 고질병을 잉태하고 있음을 깨우쳤다.

도대체 우주속의 지구란 무엇이고, 환경이란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이며,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내다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따위의 물음을 내깐에는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공해, 그 중에서도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의 정체를 까밝혀 내는 길잡이가 되기로 마음 먹었다.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일깨움과 공동인식이 진실로 필요했다.

달리 말하면, 환경의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반공해의 물결을 일으켜야 한다는 믿음에 이르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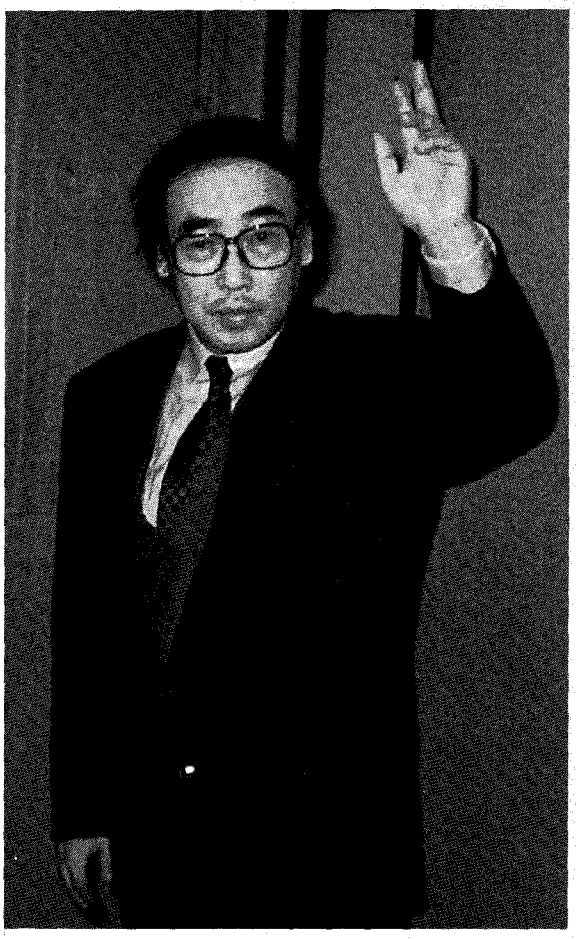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문영역에 멈춰 있는 환경문제를 보편화시켜야 하리라고 생각했다. 말하자면, 환경문제가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문제이기도 함을 인식시키고, 그들로 부터 적극적인 반응과 행동을 얻어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물론, 환경오염을 단순히 대중 차원의 이슈로 끌어내리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 없었다. 그러나, 맞부닥친 공해의 다급한 실상과 그것이 부를 참담한 비극을 전문가의 실험실이나 관리의 서류 상자나 기업의 창고안에 유폐시키거나 방치해 둘 일이 아니었다.

어떻게든 제동을 걸고 감시하지 않으면, 오염화 현상은 더욱 무섭게 속도가 붙고, 더욱 다양화되고, 깊어지고, 광역화되는 악순환의 확대 재생산을 막을 길이 없는 형세였다.

이렇게 하여, 70년대 초의 이땅에는 마침내 "반공해

어렵다



운동"이 등장하게 되었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낯선 광대들이 벌이는 헤프닝의 한 토막쯤으로 비쳤을지 모를 일이다.

실지로, 이 집단 행동을 어떤 정치적 틀을 거부하는 불온 운동이라고 치우쳐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다. 또, 모처럼 제길을 기운차게 달려가는 황홀한 경제성장에 찬물을 끼얹는 이적 행위라고 꾸짖는 일부의 소리도 있었다.

어쨌든, 뜻을 같이 하는 몇 분들과 함께 나는 공해추방시민운동에 손을 댔다. 지면이 허락되는 대로 대중에게 우리의 환경에서 문제되는 것들을 호소하였다. 정부 관계자들에게는 정신차리도록 경고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였다.

최초의 전국토 정화운동도 폈다. 자동차 배기가스 추방운동도 벌였다. 공해진상 사진전시회, 공해추방을 다짐하는 가두서명운동도 가졌다.

어떤 형태로든 나는 보통 사람들이 알아 듣도록 환경문제를 계몽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병든 환경을 고쳐볼 방법을 부지런히 제시하였다.

환경은 본디의 좋은 자연으로 회복되어야 했다. 그것만이 인간의 삶을 다시 풍요롭게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공해의 주검 위에 누워 편안히 잠자는 사람들과 더불어 잠을 잘 수는 없었다. 그가 누구이든 깨어 있는 사람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다.

3. 나의 환경보호를 도와준 많은 사람들

1973년 봄, 내가 처음으로 환경보호의 깃발을 들고 거리에 나서자 제일 먼저 따가운 눈총을 보내온 곳은 "남산"이라고 별칭되는 중앙정보부였다. 나의 〈월간 다리〉지의 전력(타의에 의한 자살로 〈다리〉지를 폐간

환경오염을 단순히 대중 차원의 이슈로 끌어 내리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 없었다. 그러나, 맞부닥친 공해의 다급한 실상과 그것이 부를 참담한 비극을 전문가의 실험실이나 관리의 서류 상자나 기업의 창고 안에 유폐시키거나 방치해 둘 일이 아니었다.
어떻게든 제동을 걸고 감시하지 않으면, 오염화 현상은 더욱 무섭게 속도가 붙고, 더욱 다양화되고, 깊어지고, 광역화되는 악순환의 확대 재생산을 막을 길이 없는 형세였다.

시킨 것에 대하여, 화가난 정부는 3년 동안 감호 대상으로 나의 사회 활동을 감시했다)에 근거해, 또 하나의 반정부운동으로 착각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환경보호 활동을 보장해 줄 사회적 보호자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렇게 하여 만나게된 분이 바로 그때, 서울지검장에서 변호사로 자리를 옮기신 고 서주연 선생님이었다.

나는 그분을 이나라 최초의 순수 민간단체 〈한국환경보호협의회〉의 회장으로 모심으로서, 반공해• 운동이 결코 국가발전을 저해하려는 운동이 아님을 증명하려 했고, 당시 연세대 공해문제연구소의 소장으로 계시던 권숙표 박사님을 이사장으로 추대함으로서, 단체의 학술적 기틀을 마련했다.

그리고 많은 인사들의 도움으로 환경문제를 사회적 인식으로 보편화시키는 작업을 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나의 환경보호 운동을 단순한 사회개혁적 운동 차원에서 학문적, 사상적 차원의 철학으로 승화시키도록 영향을 주신 분들이 많았다.

말하자면 그동안 20년간 전개해온 나의 환경보호 작업이 이나라의 환경보호에 조금이나마 기여 했다면… 아니 오늘날 환경문제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편화되어, 환경오염의 위해성과 환경보호의 당위성이 보통 사람들의 일상문제이기도함이 실감적으로 부각되는 기미가 엿보이기 시작하였다면 즉, 이땅의 평범한 사

람들이 그나마도 공해에 대한 공동인식을 얼마쯤 갖게 되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위에 기술한 분들과 이나라의 환경은 물론, 단 하나뿐인 지구의 환경문제로 노심초사하고 있는 많은 환경인들의 희생에서 이룩된 것임을 밝힌다.

4. 우리나라에서 환경이 문제로 표출된 배경

우리나라에서 환경이 적어도 "문제"로 표출된 시기는 1950년에 발발한 〈6·25한국전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6·25한국전쟁〉은 이나라의 자연생태계를 초토화 시켰고, 수질오염 피해의 원시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수인성 전염병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오염의 한 원인인 도시화를 촉발시키게 한, 전국토의 파괴를 불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환경오염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발과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이 60년대 부터 시작 되면서 우리나라의 환경은 글자 그대로 "문제"의 길로 접어 들었다.

70년대의 첫무렵, 우리나라는 후진국의 옷을 벗겠다고, 오로지 고도-고속화의 경제성장만이 치열하게 선전되고 요란스러운 찬양을 받았다. 또, 개발정책이라고 불려진 괴물이 미친 불도저 처럼 온 나라를 마구잡이로 뜯어 고치고 있었다.

정신은 소외되고 자연은 배반당하는 시절이었다. 오로지 다그치고 밀어붙이고 하는 성장-개발의 다이내믹스에 압도되어 나라고 백성이고 모두가 외곬으로 떠밀려 가고 있었다.

기적의 경제성장을 나라의 목표로 하여 뒤도 안 돌아보고 내빼는 大役事 앞에 그것이 가져 올 공해 문제쯤은 그야말로 문제라고 할 것 까지도 없는 새발의 피였다.

설혹, 문제될 것이 있다 하더라도 대수로울 것은 없었다. 정보의 문빗장을 빈틈 없이 걸어 잠그고 있었으므로 언제나 진실은 너울속에 몸을 숨겼기 때문이다.

공해의 실체는 짙은 안개속에, 아니 권력의 지하실에 연금되어 있었다. 공해쯤이야 경제성장의 상징이자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필요악이라고 서슴지 않고 내뱉거나 우겨대면 그만인 관료사회였고, 기업풍토였다.

오염의 뒤를 느릿느릿 따라가는 정부의 환경대책은 이나라의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보호는 사전 방지 보다는 사후 대책으로 그것도 환경보호를 하고 있다는 흉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가르쳤고, 급기야는 음료수 장사로 떼 돈을 번 재벌 기업으로 하여금, 전국민을 식수공포증에 빠지게 한 〈페놀사건〉이라는 국가 준비상사태를 초래하는 아이로니를 낳게 했다.

그러나 환경오염의 실상은 그때 이미, 알고 나면 외면하지 못할 정도로, 골병이 들어 있었고 증세는 더욱 악화되어 갔다. 그보다 더 위태로운 병리 현상은 오염은 있을지 모르지만 피해는 없다고 억지소리를 해대며 국민을 잘못 오도하고 있던 정부 관리들의 위대한 오류였을 것이다.

소비가 미덕이라고 목청을 돋구어 부추기던 시절이었다. 본디 생각이 얇은 우리 백성들은 권력이 던져 주는 신기루같은 미끼에 너도 나도 달려들어 그 달콤함을 맛보자 속이 부풀대로 잔뜩 부풀어 올랐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쉬운 것만을 쫓아 허둥댔다. 소비경제는 기승을 부렸다. 그것이 틀림없이 가져올 환경오염 따위는 돌 볼 겨를도 없이 공해를 무더기로 생산해 내는 외길로 줄달음쳤다.

대량소비는 마땅히 대량생산을 이끌었다. 그리하여 대량의 대기 오염물, 수질오염물, 토양 오염물 등을 우리 환경에 쏟아 놓았다. 공해에 대한 시민의식이라고 할 것이 거의 없었음으로 공해 생산은 일사천리식으로 급히 늘었다.

그럼에도 공해문제는 그것이 지닌 전문성으로 하여 전문가의 연구실에서 "분석중"이거나 공장의 톱니바퀴 틈에서 "생산중"이거나, 아니면 행정관리의 책상위에서 "결재중"이어서 손쓰기조차 암담한 형편이었다.

그러던 이나라의 환경문제는 1980년 정부 차원의 환경대책 부서로 〈환경청〉이 개청되면서, 일말의 희망을 걸게 한다. 그러나 보사부 외청으로서의 〈환경청〉은 그 권한의 한계와 환경관련 업무의 각 부처 분산 등으로 〈환경청〉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이름뿐인 〈환경청〉으로 10년의 세월을 흘러 보낸다.

그동안 이나라의 환경문제는 곪을데로 곪아, 약간의 환경영향으로도 그 피해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도, 정부와 기업 그리고 백성들은 환경보호라는 수술로 오염의 병을 다스리기 보다는 병명과 병의 원인만을 놓고 왈가왈부, 책임회피에만 급급해 왔다.

즉, 말로는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환경보호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정부의 정책과 기업 그리고 백성들이 하는 일들은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에 부지런하고 앞장 서니, 이나라의 환경은 더는 어쩌지 못할 도리킬 수 없는 벼랑으로 전락하고 말게 된다.

1990년 보사부 외청의 〈환경청〉으로는 환경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여론에 밀린 정부는 한껏 선심을 쓰는데, 그것이 겨우 각 부처간의 조정기능 역할을 하는 〈환경처〉다.

하기야 애초부터, 미래지향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보호 보다는 당장 눈 앞에 들어나 보이는 이익인 개발과 성장에 입맛을 들인 정부가 환경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부처로 만들 까닭이 없다.

하여간 그렇게 오염의 뒤를 느릿느릿 따라가는 정부의 환경대책은 이나라의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보호는 사전 방지 보다는 사후 대책으로 그것도 환경보호를 하고 있다는 흉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가르쳤고, 급기야는 음료수 장사로 떼 돈을 번 재벌 기업으로 하여금, 전국민을 식수공포증에 빠지게 한 〈페놀사건〉이라는 국가 준비상사태를 초래하는 아이로니를 낳게 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경제가 최악인데도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멜 생각은 안하고, 세계 최고 액수의 ××賞이다, 세계 최대의 박람회다, 심지어는 러시아에 엄청난 금액의 경제 차관을 하는 등 허세만을 부리고 있으니, 백성인들 가만히 보고 있을수만 있겠는가? 너도나도 과소비, 허영적인 소비, 과시적인 소비의 만족

우리의 민족성, 그 민족성에서 환경을 보호할 수 없는 많은 원인중에서 대표적인 세가지 뿌리는 첫째, 공유물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점 둘째, 정직하지 못하다는 점 셋째, 소유욕이 너무 강하고, 성취욕이 급하다는 사실 등이다. 물론, 우리의 민족성에는 이런 단점도 있지만, 좋은 장점도 많이 가지고 있어, 교육과 시간이 흐르면 차차 나아질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도 생각할 수 있다.

1975년 9월 10일 서울 무악재에서 한국환경보호협의회 회원들이 가진 한국최초의 공해추방캠페인

에 신들려 있다.

어찌, 이나라가 대량생산에 의한 대량의 대기오염 물질, 수질오염 물질 그리고 쓰레기의 폭발로 공해피해 강산이 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5. 이 나라에선 환경보호가 어려운 까닭

솔직히 그리고 양심적으로 말해서 우리나라에선, 환경보호 어렵다. 〔직설적으로 표현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환경보호를 하고 있고, 또 기적이라는 것이 있을지도 몰라……〕 그것이 20년 동안 죽어라 하고 환경보호를 해온 나의 마지막 결론이다.

이런 생각은 이미 10여년 전 부터, 내 뇌리를 지배해 왔다. 아니 어쩌면 환경보호를 시작한 초기 부터 그런 낌세를 느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기우이고 잘못된 생각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열심히 환경보호를 외쳐 왔다.

그동안 설마가 환경오염을 가속시켜 왔지만, 그래도 설마 사람들이 환경오염으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게 되는 것을 뻔히 보면서 외면하겠는가? 생각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 다행히 환경보호를 외치는 사람과 단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90년대 들어서는 환경인이나 환경단체 뿐만 아니라 언론과 사회각계의 모든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또 일사분란(?)하게 환경보호의 깃발을 치켜들어 일말의 희망을 걸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92년의 〈UNCED회의〉는 환경보호가 救國의 방법임을 확실하게 깨우쳐 주었고, 때에 맞춰 동서고금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국가환경선언〉도 거창하게 발표되어, 이제 이나라가 드디어 환경보호 우선 정책을 펴고, 그러면 무엇이 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한 환경보호주의자의 순진한 희망이고, 아름다운 꿈이었을 뿐이다. 어쩌면 이나라에선 민주주의가 어렵고, 현실적인 여러 여건으로 보아 그림같은 민주주의 보다는 선의의 강한 힘이 필요하듯이, 당분간 이나라에선 환경보호 우선 정책을 펼수도, 펴서도 안된다.

지금 그 어느 것 보다, 시급한 문제는 도탄에 빠진 국민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그것부터 살려 놓아야 환

경보호건 뭐건 할 수 있다. 경제가 최악으로 어려워 백성과 나라가 허덕이는데 환경보호가 귀에 들리겠는가?

요즘, 하루에도 수 십개의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있다. 당장 기계를 돌릴 원단이 없어, 인건비가 없어, 아니 만든 물건을 팔 곳이 없어, 공장의 문을 닫아야 되는 판에, 그래서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판에 환경보호는 빛 좋은 개살구 일 수 밖에 없다.

나라의 경제가 제 자리를 찾고, 백성이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야 환경보호도 좋고, 민주주의도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그럴 조짐이 보이질 않는다. 날이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이런 기초적인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는 어디로 실종되었는가? 그림자도 보이질 않는다.

그래서 환경보호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아니 환경을 보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이 나라에서, 환경보호가 안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민족성 때문이다. 이런 민족성으로는 환경을 보호할 수 없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보자, 그동안 우리가 걸어 온 길을……그리고 오늘의 현실을……

우리의 민족성, 그 민족성에서 환경을 보호할 수 없는 많은 원인중에서 대표적인 세가지 뿌리는 첫째, 공유물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점 둘째, 정직하지 못하다는 점 셋째, 소유욕이 너무 강하고, 성취욕이 급하다는 사실 등이다.

물론, 우리의 민족성에는 이런 단점도 있지만, 좋은 장점도 많이 가지고 있어, 교육과 시간이 흐르면 차차 나아질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민족성의 뿌리가 어제 그제 내려진 것도 아니고, 더구나 민족성이라는 것이 10년 20년의 세월에 쉽사리 바뀌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하루가 다급한 환경 현실로 평가할 때, 우리의 환경은 극히 비관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좌절하고 있을 수만도 없고…… 참으로 답답하다.

6. 환경보호가 될 수 있으려면……

우리나라에서 환경보호가 될 수 있으려면, 앞서 지적한 민족성이 바뀌어야 한다. 아니면 적어도 바꿔 보려고 노력을 하거나, 바꾸는 척이라도 해야 한다. 그걸 생각해 본다.

〈1〉 공유물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강조하는 민족이 우리나라다. 말 끝마다, 우리나라, 우리 학교, 우리 집, 우리 남편, 우리 애 등 나와 연관된 지칭에 "우리"가 안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면서 생각과 행동은 우리가 아닌 "나"뿐인 것이 우리의 민족성이며, 현실이다. 이런 나만의 존재가 바로 공기와 물 그리고 토양과 같은 공유물을 보호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한 예로, 1977년 〈자연보호범국민운동〉이라고 해서, 온 국민이 쓰레기 줍기의 자연정화에 나섰으나, 15년 동안 개선되기는 커녕, 더 많은 쓰레기가 산천에 깔리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되어 있다.

자신의 집 마당에서는 쓰레기는 커녕, 담배재도 흘릴까보아 조심하면서도 산과 들에 나가서는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우리다. 즉 내 것만 내것이고, 우리의 것〔공유물〕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의 경우만해도 그렇다. 모 일간신문사가 언론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장기적으로 그리고 지면을 대폭적으로 할애하면서, 쓰레기대책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엊그제 추석때, 귀향길의 정체된 고속도로변이 쓰레기의 산으로 뒤덮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했다. 그것이 우리의 의식수준이고, 공유물에 대한 인식부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모든 국민이 공유물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사회 지도층 계층과 경제적으로 풍족한 부류의 사람들 부터 체질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관료주의 정책과 공무원의 권위주의 자세가 바뀌어야 하고, 근본적으로 불로소득의 원천이 뿌리 뽑혀야 한다. 그 길만이 공유물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인식시키는 많은 방법중의 첫 방법이다.

〈2〉 정직이 삶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한때, 공해대국으로 불리우던 일본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환경보호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뿌리는 정직에 있다. 즉, 일본 국민의 민족성중에서 최대의 장점이라

고 할 수 있는 정직이 환경보호의 지름길이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정직하고, 기업의 자세가 정직하고, 백성의 의식이 정직하면 환경과 같은 공유물은 애써, 보호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보호된다. 그것이 원칙이다.

정부의 정책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발의 후유증이 무엇이 된다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일을 강행하게 되고, 기업의 자세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마를 기다려 폐수를 모아 놓게 되고, 백성의 의식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산하가 쓰레기로 덮히는 것이다.

정직이 삶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사회 지도층 계층과 경제적으로 풍족한 부류의 사람들부터 체질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관료주의 정책과 공무원의 권위주의 자세가 바뀌어야 하고, 근본적으로 불로소득의 원천이 뿌리 뽑혀야 한다.

그 길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직이 삶의 바탕이 되게 할 수 있고, 그래야만 공유물이 제대로 평가되고, 그래야만 삶의 터전인 환경이 보호된다.

〈3〉 조금, 손해보는 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 민족 만큼 소유욕이 강하고, 성취욕이 급한 민족도 없다. 한마디로 매사에 욕심이 많고, 급하다.

그런 민족성이 최근에 많은 세계 1위를 불러 오고 있다. 〈에너지 소비량 세계 1위〉 〈쓰레기 배출량 세계 1위〉 〈교통사고 세계 1위〉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제공에서 가히 세계적이다.

이런 소유욕과 성급함은, 당연히 환경보호의 바탕인 〈공유물의 인식〉 〈정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 되어, 이 나라를 공해강국으로 밀어 붙이는 바탕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소유욕과 성급함은, 사람 사는 사회의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질서〉마저 무너트려, 이 사회를 무질서의 사회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정직하면 손해를 보고, 노력하면 바보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나라로 이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나는 한결같이,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덜 갖고〉〈덜 좋은 것을 선택하고〉〈조금 불편하게〉살자고 열심히 주장해 왔다. 왜냐하면,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는 원인의 뿌리는 사람들이 모두 〈더 많은 것〉〈더 좋은 것〉〈더 쉬운 것〉에의 추구였기 때문이다.

이런, 소유욕과 성급함만 고친다면 이나라의 환경을 조금은 보호할 수 있을텐데……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 것 보다는 우리의 것이 더 소중해야 한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정직한 삶이 존경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덜 갖는 것이 편해야 한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한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불편한게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

그럴려면 먼저 사회 지도층 계층과 경제적으로 풍족한 부류의 사람들 부터 체질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관료주의 정책과 공무원의 권위주의 자세가 바뀌어야 하고, 근본적으로 불로소득의 원천이 뿌리 뽑혀야 한다.

환경오염은 사람이 저지른,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대한 폭력이다. 그러므로, 그 결과에 대해 속죄하고 환경을 본디의 좋은 모습으로 되살릴 책임도 마땅히 사람이 맡아야 할 몫이다.

따라서 우리의 환경의식 부터 철저히 개조해야 한다. 또, 국가의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부터 평범한 사람들의 소비생활에 이르기 까지 우리 시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준거가 될 잣대가 있어야 하며, 잣대에 따른 평가가 외상 없이 실천되어야 한다.

나는 그 잣대를 〈슈마허〉에게서 발견하였다. "Small is beautiful"! 이 한마디가 곧 우리의 환경에 대한 재발견이자 진실이 되어야 한다.

7. 나와 〈환경관리인연합회보〉

그동안 나는 이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보〉가 창간된 1986년 5월호 부터 오늘 까지의 6년 6개월 동안 이 칼럼을 통해, 환경오염의 위해성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꾸준히 외쳐 왔다.

그것은 내가 남보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식견이 높아서도, 글을 잘 써서도 아니었다. 그러면서도 나의 환경보호 작업이 글과 강의로 이어진 것은 그래도 대학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 것 보다는 우리의 것이 더 소중해야 한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정직한 삶이 존경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덜 갖는 것이 편해야 한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한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불편한게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

에서 글 쓰기를 배웠고, 다행히 말을 조금 정리해 극적으로 표현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보〉에 뿐만 아니라, 많은 활자 매체에 글을 썼고, 이곳저곳에서 강의를 하고, 방송의 마이크를 잡은 것이다. 그동안 내가 글과 강의로 환경보호를 호소한 경우를 큰 것만 따져, 기술해 본다.

글의 경우, 필자의 이름으로 출판된 책이 14권에, 몇년 이상 매월 고정적으로 글을 연재한 월간 잡지가 5종(공해대책, 환경보전협회보, 환경관리인연합회보, 환경기술, 사단) 그리고 20년 동안 이신문 저잡지에 글을 쓴 것 까지 합치면 2백자 원고용지로 약 10여만장의 글을 쓴 폭이 된다.

강의의 경우, 고정적으로 10년 이상 장기 출강한 곳이, 1977년 부터 1988년 까지의 11년 동안 새마을 교육원에서 매주 230명에게 강의를 했는데, 230명×4주×년 평균 8개월×11년이면 8만 여명에, 1980년 부터 오늘 까지 12년 동안 국립환경연구원에서 4만여명, 여러 대학과 대학원에서 1만여명 그리고 많은 직장과 단체 등을 통해 5만여명 등 줄잡아 20여만명에게 환경보호를 강의해 왔다.

그리고 20년 동안 TV나 라디오 방송의 인터뷰나 칼럼을 통해서도 환경보호를 호소해 왔는데, 몇 년 이상식의 고정 프로로는 1976년 부터 1980년 까지 동양방송의 〈가로수를 누비며〉와 1986년 부터 1988년까지 KBS 라디오의〈깨끗한 환경, 건전한 생활 (하루 4-8편)〉의 방송과 방송원고를 써 왔으며, 그 외의 단편적인 방송까지 하면, 많은 호소와 엄청난양의 원고로 환경보호를 호소해 왔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글을 쓰고, 강의를 했지만, 이제 까지 내 마음에 꼭드는 글과 강의가 하나도 없다. 하기야 환경에 대한 사상적 철학이 빈약한 주제에 마음에 드는 글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과욕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다!〉 꼽을수 있는 글과 강의가 없는 까닭의 근본 원인은 여유 있게 글을 쓰기 보다는, 항상 글과 강의에 쫓겨 온 때문이 아닌가 생각 한다.

그동안 나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항상 쉴틈 없이 공부를 해야 했다. 사실 70년대 초만 하더라도 오늘 날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오존층〉문제와 〈온실 효과〉그리고 〈산성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그것이 문제로 표출된 것이 70년대 후반에서 부터 80년대 초여서, 그 새로운 문제를 쫓아 정신 없이 공부해야 했다. 그래야 원고와 강의에 〈오존층〉과 〈온실효과〉그리고〈산성비〉를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렇게 20년 동안, 새로운 환경문제와 씨름하면서, 글과 강의에 쫓기면서 살아 왔다. 글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뼈를 깍는 고통인가? 는 글을 써 본 사람이면 안다.

그래도 글이 잘 될 때에는 신바람이 날 수도 있다. 그러나 글이 안되고 약속 날자를 넘겨, 독촉을 받을 때의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 없다. 그래서 몇번이나 글 쓰는 일을 집어 치우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어쩌면 글을 쓸 때마다. 이제 이 글로 〈글 쓰기를 끝내는 것〉이라고 다짐했는지도 모른다. 특히, 어쩌다 내 솔직한 글에 마음 상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간혹 내 사심 없는 글을 오해하는 사람이 생길 때면 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할 수 없겠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왔다.

사실, 할 수만 있었다면, 오염의 현장을 직접 기술적으로 지키는 환경관리인이 되고 싶었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만드는 공학도나, 정책적으로 환경문제를 다루는 정책 입안자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능력과 기회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때(원고 청탁이나, 연재물의 마감이 되면)가 되면 버릇 마냥 붓을 들곤 했다. 그것은 천성

이 글쟁이어서나, 또는 어떤 사명감에서나 그리고 최근 들어, 나의 이런 글들에 원고료라는 사례가 붙어, 사무실의 운영비나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 붓을 쉽게 놓을 수 없었던 것도 아니다.

다만, 환경을 보호한다는 일이 한마디로 남을 위한 숭고한 일이고, 당장의 이익이 아닌 미래의 이익을 위한 고차원적인 일인…… 그 좋은 일에 글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고맙고, 신이 나서 붓을 놓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무모하게도 이 연합회보의 칼럼을 6년 반이나 써 왔던 것이다.

처음 (창간시)에는 아무도 이 연합회보를 주목하지 않아, 참여의 폭을 부추기기 위하여 (관리인의 회보지만, 관리인만의 외침이 아니라는 차원에서)칼럼을 연재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나, 회보의 틀이 잡혀 나가면서는 읽을거리로 칼럼을 썼다.

그리고 칼럼이 고정되면서는 이 환경계에 누군가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더라도, 듣기 싫은 소리 그러나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 그런 글을 썼다.

그래서 환경계에서는 최초라고 할 수 있는 필화사건 (강원민 발행의 공해안전지 비평)에 휘말려야 했고,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에 관한 글 때문에 존경하는 선배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고, 최근 환경정책 비평의 글 (환경처 개선되어야 한다／환경세를 반대한다)로 언제나 응원군으로 환경행정을 두둔해 주기를 바랬던 환경처에 섭섭함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그렇게 했던〉나의 글들은 결코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썼던 것은 아니다. 오직 환경보호 그 너무나 중요한 일, 때문에 나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호소한 나의 솔직한 권유였다.

나도 점잖은 글, 中庸之美德의 글로 이 풍진 세상을 누이 좋고, 매부 좋게 살아 나가는 것이 편하고, 쉽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항상 내 글을 지켜 보아 주시는 노융희박사님의 충고와 같이 "바늘로 찌르는 글보다. 솜방맹이로 때리는 글"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것이 좋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이나, 솜방망이로는 환경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 누군가는 듣기에는 좋지 않지만…… 찔러도 피가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그것이 환경보호에 보탬이 되는 말이라면, 용감하게 면전에서 해야 했었다. 바로 그 총대를 내가 맨 것이다.

8. 글을 끝 맺으면서

이제 이 글을 끝맺는다. 이 한편의 글이 아니라, 6년 6개월 동안 연재해 온, 이 칼럼의 대단원을 내린다. 사

1989년 6월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 환경교육회, 한국환경보호협의회가 공동개최한 제17회 세계환경의 날 기념심포지엄

실, 이 칼럼을 50회 썼을 때, 붓을 놓으려고 했었다. 그러나 여러 사정이 여의치 못했다. 그래서 100회를 채우려고도 생각했었다.

그러나 앞으로 100회를 채우려면, 계속 3년여를 더 글을 써야 한다. 생각만해도 끔찍한 일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바른 말을 시작한 이상, 앞으로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말도 나올텐데, 그로인해 친한 사람과 적이 되고 싶지도 않다.

그리고 그 무엇 보다도 내가 환경보호의 일에 뛰어든지 꼭 20년이 되는 1993년 한 해만은 조용히 나 자신을 되돌아 보고 싶다. 글로, 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더 해야 할지? 더 늦기 전에, 그만 내 길을 찾아 나서야 할지?

이, 정든 칼럼의 붓을 놓으면서, 한 해의 마지막 길목에서 말한다.

환경보호, 지금과 같은 방법이어서는 안된다.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자세 그리고 국민의 생활 패턴 모두…… 특히, 환경을 보호한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환경처나 환경단체의 환경보호 방법과 자세는 철저히 환경보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조만간, 환경처가 환경부로 바뀔 것이다. 그러나 또 이름만 바뀌고, 자연적으로 승격되는 환경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환경보호, 그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일하는 환경부가 되어야 하고, 〈정부를 위한〉〈환경 그 자체만을 위한〉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환경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듣기로는 환경보호 단체들 뿐만 아니라 많은 유명 (?) 단체들이, 새해 부터, 새로운 환경보호를 할 것이라고 한다.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몇 사람의 공명심을 부추겨 주고, 단체 활동을 합리화 시켜 주는 그런 환경 보호여서는 안된다.

특히, 매스컴과 여론을 의식해 〈강한 목소리〉〈그럴듯한 몸짓〉의 요란한 환경보호가 되어서는 더욱 안된다. 환경보호는 사랑과 희생으로 이룩되어야 한다. 거창하지 않게 묵묵히 실천하는 환경보호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단체는 많을수록 좋다. 그렇다고 해서, 애써 조직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단체를 만들어 내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단체를 억지로 크게 만들다보면, 환경보호 보다는 단제를 위한 조직이 되고 만다.

〈뜻이 맞는 사람 끼리〉〈구체적인 활동의 테마 끼리〉 모여서 생긴 작은 실천의 모임이 진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즉, 필요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모여지는 그런 자발적인 모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끝으로 환경관리인의 경우, 현장의 관리인이라는 〈이름뿐〉이거나 〈직책뿐〉인 환경관리인이어서는 안된다. 즉, 주어진 여건과 임무에만 충실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스스로 일을 찾아 환경을 보호하는 행동하는 관리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공부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을 익혀, 새로운 공해에 대비해야 하고, 단결하여,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환경관리인의 전국 모임인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도 새해부터는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그동안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가 단체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몇 사람들의 간부들이 조직 강화에 힘을 기우려 왔다면, 이제는 전체 회원들이 나서서 단체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회보를 받아 보고, 1년에 몇번 개최되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년말이면 송년회로 한 해를 자축하는 그런 편안한 관리인이어서는 안된다. 회원 모두가 회보를 만들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연합회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회원을 위한, 회원에 의한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직장뿐만 아니라 지역, 더 나아가 이 나라의 환경보호를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뛰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에서 자격증을 부여한 환경관리인의 의무며 권리다.

이 나라에선 환경보호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호를 할 가치가 있고, 더욱 환경보호에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동안 저의 빈약한 글을 읽어 주시고, 충고와 격려를 해 주신 많은 환경인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소원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1992년 12월 박 창 근배